

다도(茶道)유파 엔슈(遠州)류의 형성

- 『신서기행(辛西紀行)』의 역할 -

후지와라 미즈키 (간사이대학)

1. 서론

엔슈(遠州)류 다도는 창시자인 코보리 마사카즈(小堀政一)(1579~1647)(이하 엔슈라 칭함)는 '키레 사비(綺麗さび)'로 불리는 미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다도 유파이다. 엔슈는 현대에 다이묘 차(大名茶)를 확립한 무가차(武家茶)인 으로서 특히 잘 알려져 있는데, 다도뿐만 아니라 서(書)와 와카(和歌), 작정(作亭)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발휘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엔슈가 자신의 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 엔슈의 미의식이 17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미적 가치관으로 양성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또한 엔슈류 다도에 의해 그 창시자의 저작으로 전승되어 온 기행문 『신서기행(辛西紀行)』을 다루고, 정가(定家) 서풍(書風)을 이용하여 필사된 『신서기행』 전본에 주목하여 엔슈류 다도에서의 『신서기행(辛西紀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가 서풍으로 필사된 『신서기행』의 텍스트가 전승 과정에서 엔슈의 자필본으로 인정되어 엔슈의 미의식을 전하는 텍스트로서 엔슈류 다도 전수의 장에서 받아 들여졌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2. 엔슈에 대한 평가

엔슈는 에도 시대 전기의 다이묘(大名)이다. 오미노쿠니 사카타군 고보리 마을에 고보리 마사츠구(1540~1591)의 장남으로서 태어났다. 마사츠구가 도요토미 히데나가(1540~1591)를 섬김에 따라 엔슈는 히데나가의 소성(小姓:무가의 직명)이 되었고,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를 섬겼다. 히데요시의 사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를 섬겼고, 세키가하라 전투(1600)에서 도쿠가와 측에 참군했다. 그리고 케이초 13년(1608)에는 스루가국 순푸성 축성에 있어 작사봉행을 맡은 공으로 종5위하 도오토미노카미에 서임되었고, 이후 '토오토미' 즉 '엔슈'라고 통칭되었다. 또 엔슈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후시미 봉행(伏見奉行:에도막부의 직명)을 비롯한 수많은 봉행직을 지냈다. 그러나 원록 16년(1702)에 성립된 가전(家伝)·계보인 『변한보(藩翰譜)¹⁾』는 엔슈에 대해 무사보다 다도인으로서, 또 서(書)나 와카, 다도구의 감정(鑑定)에 뛰어난 문화인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일(政一)초 도요토미 가문을 섬기고, 그 후 도쿠가와에 고용되어 오미국(近江國)에서 겐나(元和) 9년 후시미 봉행직에 보임받고, 직에 임하여 20여 년, 쇼호(正保) 4년 2월 6일, 69세에 졸업하지 않고, (중략) 후루타오리베 마사시게노리, 리큐 상족의 제자로서 정일 또는 후루타가 제1의 문인이 되고, 도(道)에 대한 일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능숙하게 쓰며, 와카를 지었으며, 안목이 높고, 서화만(書畵萬)의 기진(器珍), 모든 것을 감정하며 세상의 고하를 보며 물에서 나오는 얼음, 청에서 나오는 푸른빛, 세상의 선구자들을 뛰어넘어 상중하의 대접을 받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엔슈의 글에 대해 특히 정가(定家)의 솜씨가 좋았다고 전해진다. 정가는 후지와라노 테이카

1) 오오츠키 조덴교(大槻如電校) 『교각변한보』 3권, 요시카와 홍문관(吉川弘文館), 1956

(1162~1241)를 창시자로 하는 필압의 강약을 극단적으로 나타낸 선질(線質)이 특징인 서류(書流)이다. 정가는 와카가 뛰어나고, 그것을 학문화한 가학(歌學), 그리고 일본의 고전문학에 정통하다. 정가는 그 정신을 상징하는 서류로서 문화인에게 사용되었다. 다케노조오(1502~1555)가 정가의 가론(歌論)에서 다도와 동일한 정신을 발견하고, 정가로 쓰여진 「오구라 시키시(小倉色紙)」를 다도 도코카케(床掛け:벽에 거는 다도용 장식)로 사용한 이래, 정가는 다도에서도 존중받았다. 엔슈도 많은 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정가의 서적을 수집하여 정가와 친하게 지냈음을 엔슈가 소지한 도구의 기록이나 다회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엔슈는 정가를 배우고 스스로 정가를 썼다. 『만보전서(万宝全書)²⁾』 「본조고금명공고필제류 정가류(本朝古今名公古筆諸流 定家流)」항에서 엔슈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교합잡기(校合雜記)³⁾』에는 원주의 글씨가 정가의 자필로 오해될 정도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어 엔슈가 정가의 글씨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와카에 대해서도 고미즈오 천황(1596~1680)찬(撰)으로 전해지는 『집외 36가선(集外三十六歌仙)⁴⁾』에 선출되는 등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 또한 엔슈는 정가를 자신이 감정한 다도구의 합서(서화 등을 넣은 상자)에 진품임을 보증하여 감정가가 서명 날인한 것)로 이용하였다.

엔슈는 다도구에 대한 안목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많은 감정 의뢰가 엔슈에게 접수되었다는 사실도 현존하는 서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광원궁 무가래한류(桂光院宮武家來翰留)⁵⁾』에 담긴 엔슈의 서적 사본에 하치조 미야가(八條宮家)로부터 물병 세 점의 감정을 의뢰 받은 기록이 있다. 또 엔슈는 감정을 통해 오래된 명물의 진위를 가릴 뿐만 아니라 무명의 다도구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새로운 명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엔슈가 활약하던 17세기 초에는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한 임진·정유(1592, 1597년) 때 여러 다이묘가 일본으로 데려간 도공들의 개요(가마를 가동시킴)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많은 새로운 차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롭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도는 일본 다도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조선물(物),당물(物)로 총칭되는 조선 도자기, 중국 도기와 비교하여 일본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다도구의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 것이 엔슈였던 것이다. 엔슈는 다도구를 선정하면서 와카에서 지은 말, 즉 가어(歌語)를 명(名)으로 하는 이른바 노래명을 붙였다. 그리고 다도구를 납품하는 상자에는 그 노래명과 노래명의 유래가 된 와카를 정가로 적었다. 노래명과 와카를 정가로 적음으로써 일본에서 생산된 무명의 다도구에 새로운 유서와 가치가 생겨난 것이다. 일본에서 생산된 도구가 새로운 명물로 인식된 셈이다. 엔슈의 다도구 명명은 높이 평가되었다. 다도구의 하나인 엽차 용기가 제작되면서 완성되기 전부터 작명 의뢰가 있었음을 적은 서한도 남아 있다.⁶⁾ 또한 엔슈가 선정하여 이름을 붙인 다도구는 마츠다이라 후마이(1751~1818)⁷⁾에 의해 중흥 명물로 분류되었다. 후마이는 중흥(中興)명물을 '엔슈 이후의 명물'로 규정하고 다도구 선정에 있어 엔슈의 감정 안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엔슈가 그의미의식으로 선정한 일본에서 생산된 다도구는 센노리큐(1522~1591)⁸⁾가 찾

2) 겐로쿠 7년(1694) 초판.미술, 다도구 백과 전서

3) 사카타 시립 코오카문고조 『교합잡기』, 신일본 고전적 종합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데이터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02829/viewer>

4) 「집외36가선」(『속군서류종 제14(續群書類從第十四)』, 국서완성회, 1907)

5) 궁내청 서릉부장 『계광원궁무가래한류』, 신일본 고전적 종합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데이터
<https://kotenseki.nijl.ac.jp/biblio/100250512/viewer/73>

6) 다카하시 요시오(高橋義雄) 편 『다이쇼 명기감 제5편하(大正名器鑑 第五篇下)』, 다이쇼 명기감 편찬소, 1923

7) 에도 시대 후기의 다이묘. 이즈모 국 마쓰에 10대 영주.에도 후기를 대표하는 다인이자 후마이(不昧)류의 창시자

는 다도와 달랐다. 예를 들어 리큐가 좋아한 다도는 색조나 디자인, 창조성을 억제한 것이었다. 반면 엔슈가 좋아하던 다도는 균형 잡힌 형태와 장식성, 밝은 색조가 특징이었다. 엔슈가 활약했던 17세기에는 경(京)을 중심으로 한 왕조문화의 부흥을 확인할 수 있다. 엔슈의 취향이라 칭해지는 다도가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평가되었을 것이다. 원주의 미의식이 형성된 배경에는 엔슈가 활약했던 17세기 문화, 이른바 '칸에이 문화(寛永文化)'가 있었다.

3. 17세기의 문화와 엔슈

17세기 초, 오사카 여름 전쟁(大阪夏の陣)(1615)에 의해 전란의 시대가 끝났다. 사회는 안정과 평온의 시대로 가는 가운데 문화인들은 사교 모임을 형성하고 그 모임에서 와카나 렌카(連歌), 일본의 고전문학을 배우는 학문 등도 유행하여 공가(公家:조정에 출사한 사람들), 무가, 승려, 평민과 같은 신분을 초월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한 교류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미의식이 양성되고 문화인들에 의해 공유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폭넓은 종합적인 교양을 갖추어야 했다. 왕조 문화의 부흥도 그 중 하나이다. 경(京)을 중심으로 한 천왕(禁裏),공가의 화려한 문예활동과 정가라는 서풍이 유행하였다. 엔슈도 정가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칸에이 문화(寛永文化)에 호응하여 엔슈는 와카나 정가를 배웠고, 나아가 왕조 문화의 미의식도 스스로의 미적 가치로 삼았던 것이다.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는 칸에이 문화의 미의식의 특징을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름답다' 라는 미(美)에는 우아하고 조화로운 왕조적 미가 포함된다.또한 일한(和漢)의 고전적 교양이 요구되고 화려한 장식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장식성은 모던함으로 명쾌함을 더한다. 이 아름답다는 감각은 표현의 차이와 유파, 신분의 차이를 넘어 칸에이 문화에 속하는 여러 작품에 공유되었다.⁹⁾

엔슈 미의식이 '키레 사비'라고 칭해지는 것은 칸에이 문화의 미의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칸에이 문화의 대표로서 엔슈가 존재했다. 엔슈의 다도는 '키레 사비'라는 미적 가치로 개화하여 다도류파,엔슈류 다도는 '키레 사비'을 진수로 전개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4. 정가로 필사된 엔슈의 저작 『신서기행(辛西紀行)』

엔슈류 다도가 계승되는 과정에서 있어 정가가 그 유파의 창시자인 엔슈의 미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중요시되었다. 엔슈의 자제나 제자는 엔슈에게 배워 정가를 사용하였다. 엔슈류 다도 13대 가문인 고보리 소지츠(小堀宗實)는 엔슈류 다도의 정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엔슈류 만이 가진 같은 선조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글자를 연면(連面)하고 계승해 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도의 처음과 같은 의미이며, 같이 중요시 되는 것이 와카와 문자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¹⁰⁾

8)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다인. 와비차(わび茶)의 대성자로 알려져 일본을 대표하는 다인이다. 천가류 다도의 창시자

9) 구마쿠라 이사오 「근세의 다도(近世の茶の湯)」 (『일본 다도 전사·제2권 근세』, 시분가쿠(思文閣)출판, 2014)

10) 小堀宗實[고호리 엔슈와 정가의 서] (『정가가 가져온 것(定家のもたらしたもの)』, 한림서방(翰林書房), 2018)

정가는 엔슈류 종가에서 엔슈류 대대로의 가원(家元)이 계승해야 할 서풍으로, 엔슈류 다도의 계승에서 창시자 엔슈로 이어지는 서풍으로 인식되었다. 『신서기행』은 엔슈가 정가로 필사했다고 전해지는 엔슈 자신의 저작이다. 겐나(元和) 7년(1621)에 에도를 출발해 경(京)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엮은 기행문이다. 『군서해제(群書解題)』에는 '익살 넘치는 유창한 문장으로, 광가(狂歌:풍자와 익살을 주로 한 단가)조를 이긴 와카가 군데군데 있어 근세풍의 특색이 보인다. 문장이든 와카든 카케코토바(掛詞:수사법의 하나로 한 말에 둘 이상의 뜻을 갖게 한 것) 기교에 특히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¹¹⁾고 되어 있다. 또한 『고금와카집(古今和歌集)』 등에 실리는 와카를 인용해 『이세이야기(伊勢物語)』를 비롯한 왕조문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 엔슈의 교양을 전하는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노우에 무넌(井上宗雄)은 "현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기행문의 기초가 바로 고전, 고가를 담고 있는 아문(雅文:우아한 문장)체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¹²⁾

『신서기행』에는 식견으로 보아 31편의 텍스트가 현존하고 있다. 그 중 정가로 필사된 텍스트가 8개 있으며, 그 중 6개가 엔슈의 자필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엔슈류 다도에서 정가로 필사한 원주의 저작을 창시자의 자필로 인정함으로써 다도 유파를 계승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엔슈는 새로운 시대의 미적 가치관을 창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엔슈의 미의식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평가된 것은 전란의 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가 새로운 시대를 창생하는 17세기의 숨결과 그곳에서 태어난 문화가 그 배경에 있었다. 엔슈는 와카나 정가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인들의 교양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다도 유파인 엔슈류 다도의 형성에는 17세기 문화인들의 미적 가치가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가로 필사된 『신유기행』 텍스트는 엔슈류 다도에서 엔슈의 자필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森蘊 『小堀遠州』、創元社、1974

熊倉功夫 『熊倉功夫著作集 第5巻 寛永文化の研究』 思文閣出版、2017

(번역책임자:최선진)

11) 「원강수정일기행(遠江守政一紀行)」(『군서해제 11(群書解題 十一)』, 속군서 유종 완성회(續群書類從完成會), 1960)

12) 이노우에 무넌 「코호리 엔슈의 문학(小堀遠州の文學)」(『아와코 32(淡交 三二)』, 아와코사(淡交社), 1978)